



지표로 보는 이슈

제114호 | 2018년 3월 9일
발행처 | 국회입법조사처
발행인 | 이내영
www.nars.go.k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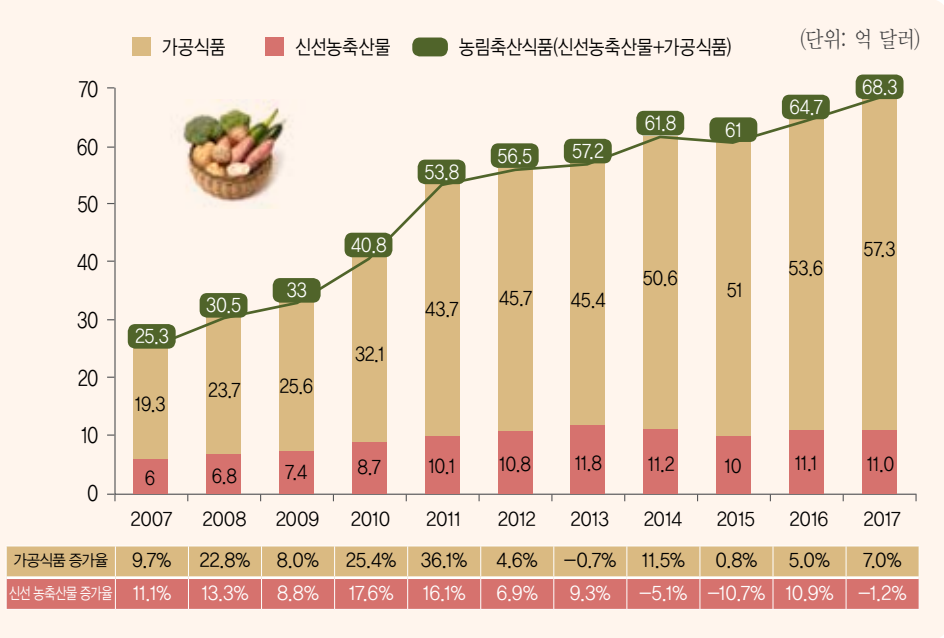
농림축산식품 수출동향 및 과제

- 농림축산식품의 수출실적은 연도별로 증감은 존재하지만 장기적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며 2017년 약 68.3억 달러로 전년에 이어 역대 최대치를 갱신함
- 가공식품의 수출비중이 약 84%로 농림축산식품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, 신선 농축산물의 최근 5년간 수출은 11억 달러 정도로 정체세를 보이고 있음
- 수출 지역 측면에서는 몇 년간 대 일본 수출의 감소로 인한 영향을 극복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사드의 여파로 대 중국 수출 감소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아세안 및 이슬람 국가에 대한 수출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
- 농림축산식품 수출의 증가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신선 농축산물 수출 증대 전략과 국가별 맞춤형 정책의 개발이 필요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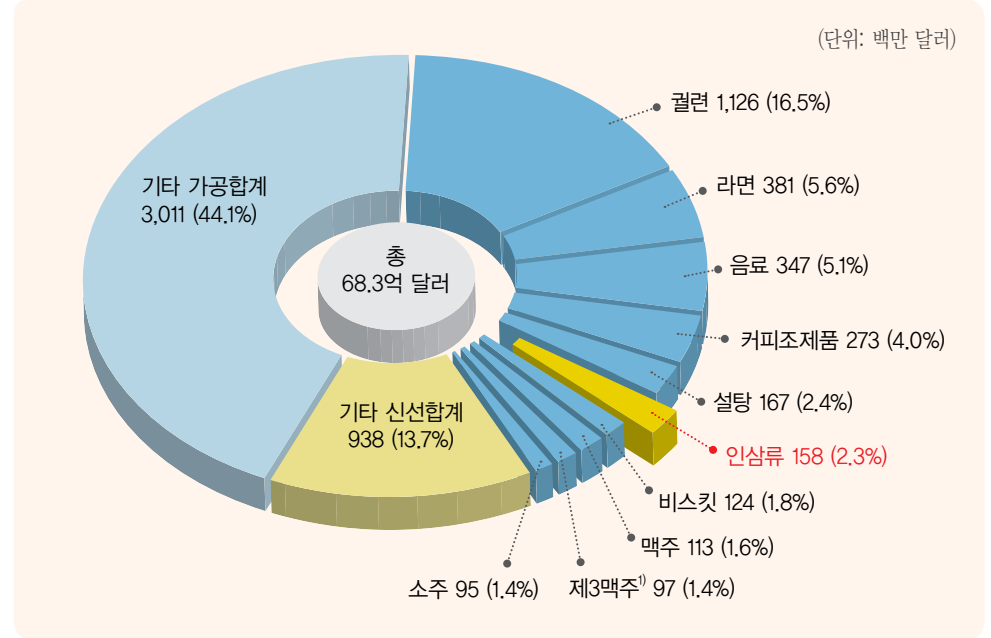
농림축산식품 수출동향 및 과제

농림축산식품 수출실적 추이



자료: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(2015.1.15, 2017.1.23, 2018.1.15), 재구성

품목별 수출실적 및 비중 (2017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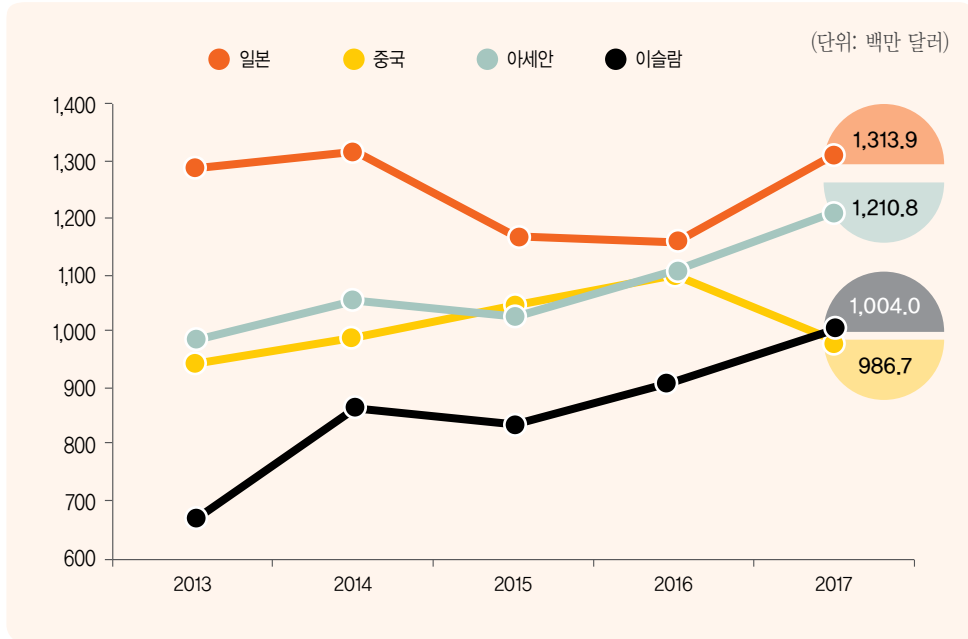
주: 1) 맥아 50% 미만에 소량의 주정을 섞은 초저도 맥주로 일본으로 대부분(99%) 수출

자료: 앞의 자료 재구성

- 2017년 농림축산식품 수출실적은 전년대비 5.6% 증가한 약 68.3억 달러를 기록함
 - 2017년 농림축산식품 수출 중 가공식품은 약 57.3억 달러로 전년대비 7.0% 증가한 반면, 신선 농축산물은 약 11억 달러로 전년대비 1.2% 감소함
- 지난 10년간 농림축산식품 수출의 추이를 살펴보면, 2011년 이후 증가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13년 이후 다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
 - 가공식품 수출은 2011년 일본 지진이후 수출 급증에 따라 전년대비 36.1% 증가한 모습을 보였으며, 이후 2013년 중동정세불안에 따라 지난 10년간 유일하게 하락하며 전년대비 0.7% 감소한 모습을 보였음
 - 신선 농축산물 수출은 2013년까지 소폭이지만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4년, 2015년에 엔저의 영향으로 수출 감소를 보였음

- 2017년 기준 농림축산식품 수출실적 중 가공식품은 84%, 신선 농축산물은 16%로 가공식품이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함
 - 수출액 기준 상위 10개 품목을 살펴봐도 신선 농축산물은 인삼(2.3%)이 유일함
- 수출액 상위 품목에 대해 살펴보면, 최대 수출품인 커피의 2017년 수출액은 약 11.3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16.5%의 비중을 차지하였고, 라면, 음료, 커피조제품, 설탕, 인삼 순으로 그 뒤를 따르고 있음
 - 라면은 최근 중국과 동남아 등에서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며 약 3.8억 달러로 5.6%의 비중을 차지함(2007년 약 1.2억 달러 대비 229% 증가)
 - 세계 경기 둔화 및 소비침체로 인해 고가제품인 인삼 수출은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유통망 확대, 제품 다양화에 따라 증가세를 회복하며 약 1.6억 달러(2.3%)를 기록함

주요 국가(지역)의 최근 5년간 농림축산식품 수출 변화



자료: 2016 농림수산물 수출입동향 및 통계, 농림축산식품부·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
시사점

- 농림축산식품의 수출실적은 연도별로 증감은 존재하지만 장기적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며 2017년 약 68.3억 달러로 전년에 이어 역대 최대치를 갱신함
- 가공식품의 수출비중이 약 84%로 농림축산식품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, 신선 농축산물의 최근 5년간 수출은 11억 달러 정도로 정체를 보이고 있음
 - 가공식품은 대부분 국내산이 아닌 수입산 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국내 농업생산과 연계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
 - 「2016 식품산업 원료소비 실태조사」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 식품제조업체에서 사용하는 국산 원료 농산물 비중은 31.5%임
- 수출 지역 측면에서는 몇 년간 대 일본 수출의 감소로 인한 영향을 극복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사드의 여파로 대 중국 수출 감소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아세안 및 이슬람 국가에 대한 수출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
- 농림축산식품 수출의 증가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함
 - 농가의 소득과 직결되는 신선 농축산물의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내실 있는 전략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함
 - 다양한 유통망 확대 등을 통해 대 일본 수출을 개선한 것과 같이 대 중국 수출을 개선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 수립이 필요함
 - 아세안 및 이슬람 국가 등 최근 수출 상승세를 보이는 국가들에 대해 현지 판매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할랄 식품 인증 확대 등의 다양한 정책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



- 2017년 주요 국가(지역)의 수출 변화를 살펴보면, 사드 영향으로 대 중국 수출이 감소한 반면에 최근 감소세를 보이던 일본 수출이 다시 증가세를 보였으며, 아세안 및 이슬람 국가에 대한 수출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
 - 최근 증가세를 이어오던 대 중국 수출은 인삼, 라면의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드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10% 감소한 약 9.9억 달러를 기록함
 - 엔저영향과 한일관계 경색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던 대 일본 수출은 다양한 유통망 확대에 따라 전년대비 13.4% 증가한 약 13.1억 달러를 기록함
 - 2015년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하락했던 아세안, 이슬람 국가에 대한 수출은 이후 회복세를 보이며, 2017년 대 아세안국가는 베트남 및 태국의 라면 판매매장 확대 등에 힘입어 약 12.1억 달러(전년대비 9.3% 증가), 대 이슬람 국가 수출은 라면의 할랄 인증 취득과 궤련의 시장규모 확대에 약 10억 달러(전년대비 10% 증가)를 기록함



지표로 보는 이슈는
입법 및 정책 현안과 관련이 있는
지표를 통해 현상을 진단하고 입법·정책적 개선방안 등
시사점을 모색하는 보고서로 수시
발간되고 있습니다.

www.nars.go.kr

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.

